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음 5월 2일) 제20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2018 러시아월드컵 킥 오프

# 전주시민들의 한바탕 응원 하나로

조별리그 경기 열리는 18일·24일·27일 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응원전 열기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펼치는 야의 응원전을 통해 2018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기로 했다.

시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F조 경기가 열리는 오는 18일(오후 9시 스웨덴전)과 24일(오전 0시 멕시코전), 27일(오후 11시 독일전)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월드컵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응원전이 펼쳐지는 당일 경기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붉은악마 등 시민과 함께 러시아월드컵 응원전을 펼쳐,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염원하는 기(氣)를 태극전사들에게 불어넣을 예정이다.

경기 당일, 시민들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의 대형전광판 2곳을 통해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응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경기장을 방문해 응원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날 단체응원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김신욱·이재성·이용 선수의 소속팀인 전북현대 모터스FC에서 종합경기장(정문)과 도청(서측 후문), 롯데시네마 전주평화

점에서 호남제일문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할 방침이다. 러시아월드컵 전주시 응원전은 경기 종료 후 참여자 모두가 함께 행사장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크린업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재수 전주시 체육산업

과장은 "대한민국 축구수도 전주에서 시민의 열기와 뜨거운 함성으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마련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선거에 당선된 송하진 도지사가 14일 오전 도청 현관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에게 꽃다발을 받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러시아 최대 언론사 "전주, 말이 필요없는 요리의 수도"

코스볼스카야 프라우다, 기획보도 통해 비빔밥 등 음식 소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음식 문화가 월드컵이 열리며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소개되면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언론사인 코스볼스카야 프라우다는 최근 자사의 기획보도를 통해 전주를 '말이 필요 없는 음식의 수도',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 '풍요로운 음식의 고장'으로 러시아 전역에 소개했다. 코스볼스카야 프라우다는 지난 1925년 설립된 러시아 최대 미디어사로, 이번 기획보도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 전문가인 레오니드 자로프 편집국장이 지난 3월 말 음식취재차 전주를 직접 방문해 취재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자로프 편집국장은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전주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요리의 수도'라고 소개하며, 궁중음식과 전주비빔밥 등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꼼꼼히 소개했다.

특히, 그는 전주의 궁중음식에 대해서는 '아름답을 美 한마디로 표현하며, 맛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식기와 플레이팅 등 색상의 조화까지 극찬을 하며 "왕이 된 느낌"이라는 소감도 곁들였다.

시는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러시아월드컵 개막으로 인해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러시아 최대 언론사에 전주의 음식문화가 소개되면서, 향후 해외 미식여행객들의 전주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철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습니다.

## 社告



## 제5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

일시: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품바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 및 해학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다섯번째 품바왕 명인전이 열립니다.

- ▲주최: 사) 전북문화진흥원
- ▲주관: 사) 전북문화진흥원
- ▲후원: 전주시
- ▲문의: 사) 전북문화진흥원 (063-288-9700)

## "지역사회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도지사·교육감·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당선증 교부식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비례대표전라북도회의의원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을 14일 오후 4시 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당선증 교부식에는 한승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선관위 위원, 전북도지사·전북도교육감·비례대표전라북도의원 당선자

및 가족,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증 교부, 위원장 인사말씀, 당선자 당선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당선증 교부식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2년·3년 구형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고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부분에서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

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뉴스

# 당신의 여름휴가

## 낭원을 선물하세요

**춘향과의 만남 · 지리산 트레킹**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공연(7.22-8.15)**  
**정령치의 밤하늘과 별빛**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